

중국인 독립유공자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 사례 분석*

— 황궈(黃覺), 두권궈이(杜君慧), 쓰투더(司徒德)를 중심으로

문 미 리**

[초 록]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공로로 서훈을 받은 중국 국적 독립유공자들은 대부분 중국국민당 계열 인사로 분류할 수 있다. 수많은 한인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민당이 오랜 기간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중국인은 다양한 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당 계열 이외의 인사와 활동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국민당의 지원 전체가 곧 대한민국

* 이 논문은 2019년 12월 6일 한국역사연구회 국제학술회의 “외국인 독립유공자의 활동과 한국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학술회의에서 토론을 맡아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독립기념관의 조은경 학예연구관님과 논문을 발전시키는 데 소중한 제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제어: 독립유공자,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 중한문화협회(中韓文化協會), 황궈(黃覺), 두권궈이(杜君慧), 쓰투더(司徒德)

Independence Patriots, Guomindang, China-Korea Culture Association, Huang Jue, Du Junhui, Si Tude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되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중국인 독립유공자 세 명을 선정하고 그들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 활동을 살펴보았다. 국민당 계열 인물이지만 사회주의·아나키즘 성향을 가진 한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활동했던 황궈(黃覺)는 국민당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한 인물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두권웨이(杜君慧)를 통해서도 누군가의 아내나 보조자가 아니라 또 한 명의 ‘온전한’ 독립운동가로서의 위상을 찾아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쓰투더(司徒德)와 중한문화협회는 국민당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을 현대 한중 관계라는 더 큰 시야 속에서 분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의 면면을 분석하는 작업은 중국인들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 전체상을 새롭게 조망하는 데 일조하고, 나아가 한국 독립운동에 협력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중국인 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머리말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포상은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건국공로훈장령」을 제정하고 당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과 부통령 이시영(李始榮)에게 1등급 건국공로훈장을 준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62년부터 국가 차원의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화되었고, 1960~80년대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다가 1990년부터 매년 정기적인 포상을 시행하고 있다.¹⁾ 2020년 3월 31일 현재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5,931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 외국인인 34명으로 전체 외국인 71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²⁾

1) 조철행(201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가발굴TF팀의 사업과 과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 318.

2)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처, 2020. 3. 31. <http://e-gonghun.mppva.go.kr/user/IndepMeritsRewardStat.do?goToCode=10001>.

중국 국적 외국인 중 가장 먼저 서훈을 받은 사람은 중국국민정부 총통이었던 장제스(蔣介石)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3년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공로로 장제스에게 1등급 건국공로훈장을 수여하였다. 이후 쑨원(孫文), 쑹메이링(宋美齡), 천과푸(陳果夫), 천치메이(陳其美) 등 22명이 1960년대에, 쑨커(孫科), 주자화(朱家驊) 등 5명이 1970~80년대에, 나머지 6명이 1990~2010년대에 각각 외국인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들 중 두 췌웨이(杜君慧), 리수전(李淑珍), 쑤징허(蘇景和), 허상치(何尙祺)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중국국민당(이하 국민당)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³⁾

주지하듯이 식민지시기 중국은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였고, 수많은 한인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민당은 오랜 기간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지지하였다.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을 전후한 시기부터 시작된 한인 독립운동가들과의 교류와 이들에 대한 지지,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법무총장 신규식(申圭植)의 광저우(廣州) 호법정부(護法政府) 방문을 계기로 한 임시정부와 호법정부의 연대, 1932년 윤봉길의거 이후 조직적·정책적으로 전개된 김구(金九)와 김원봉(金元鳳)에 대한 지원,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본격화된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에 대한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

3) 두췌웨이와 리수전은 한인 독립운동가의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한국 독립운동에 투신한 여성들이고, 쑤징허는 난징(南京) 중앙대학(中央大學) 학생 신분으로 한국광복군의 초모(招募)활동을 도운 인물이다. 허상치는 올해(2020년) 새롭게 서훈을 받은 여성으로 한국국민당에 소속되어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와 그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서 활동하였다(각 인물의 공적조서 참조).

4)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 국민당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과 관련한 대략적 흐름과 시기별 특징은 한상도(2004), 『중국혁명 속의 한국독립운동』, 집문당, pp. 69-77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한상도는 여기에서 국민당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 정책의 본질이 중화주의에 있다고 보았다. 즉, 전후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질서 수립과 주변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회복이 국민당이 한국 독립운동 세력을 지원한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국민당과 한국 독립운동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도 대체로 위와 같은 주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보니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인 독립유공자들의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고, 특히 이들이 사회주의·아나키즘 성향을 가진 인사나 단체를 지원한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임시정부에 대한 국민당의 지원을 다룬 연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당과 그 계열 인물들의 조력 전체가 곧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중국인은 다양한 결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당에 속했다 하더라도 임시정부만을 지원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또한 쑨원, 장제스 등 최고위급 인물을 제외하고는 중국인 독립유공자의 개별 활동과 그 의미를 제대로 조명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⁵⁾ 즉, 그동안의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독립유공자들은 대부분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배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왔던 것이다.

이 논문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인 독립유공자 세 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당 계열 인사지만 사회주의자·아나키즘 계열 한인 독립운동가들과도 교류하며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황궐(黃覺), 한인 독립운동가 김성숙(金星淑)의 아내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던 두견훤이,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해방 이후에도 한국과 인연을 맺었던 쓰투더(司徒德)가 그들이다. 그간 거의 주

5) 독립기념관에서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 전반을 다룬 인명사전을 집필·출간하였다(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편(2019),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특별판』 3, 독립기념관). 같은 취지에서 한국역사연구회에서도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유공자 70명의 활동을 담은 책을 발간하였다(한국역사연구회 엮음(2019), 『한국인의 벗, 외국인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 이러한 작업을 통해 외국인 독립유공자의 생애와 업적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두 책 모두 해당 인물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둔 사전적 성격이 강하며, 어떠한 문제의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분석’한 ‘연구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목받지 못했던 이들의 활동을 조명함으로써 중국인들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 전체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 일조하고, 나아가 한국 독립운동에 협력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중국인 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이념과 계열의 경계를 넘어선 지원: 황궈(黃覺)의 사례

황궈는 국민당 계열 독립유공자 가운데 가장 특이한 행보를 보인 인물 중 한 사람이다.⁶⁾ 그는 1905년 일본 도쿄(東京)에서 쑨원이 조직한 중국 동맹회(中國同盟會, 이하 동맹회)에 가입하면서 사회활동을 시작하였다. 동맹회는 삼민주의(三民主義)를 강령으로 삼고 무장봉기를 통한 청조(淸朝) 타도를 목표로 활동한 단체였다. 동맹회가 1900년대에 시도한 여러 차례의 무장봉기는 별다른 성과 없이 실패로 돌아갔으나, 신해혁명의 시발점이 된 우창기의(武昌起義, 1911. 10. 10.) 이후 각 성(省)의 동맹회원들이 봉기하여 한 달여 만에 총 24개 중 17개 성이 청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신해혁명에 고무되어 중국으로 망명해온 한인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을 위해 중국 혁명세력과의 연대 형성을 희망하였다. 1910년대 중국 혁명세력과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국제연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이다. 상하이(上海)에서 신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된 신아동제사에는 천치메이를 비롯하여 송자오런(宋教仁), 후한민(胡漢民) 등 이후 국민당 주역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신규식과 중국 혁명세력을 매개로 조직된 신아동제사와 이를 통해 형성된 1910년대

6) 1883년 중국 장시성(江西省) 청장현(淸江縣)에서 출생한 황궈는 본명보다 호인 황제민(黃介民)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한국 독립운동 관련 논문이나 사료뿐 아니라 황궈와의 인연을 소개한 독립운동가들의 회고록에서도 황제민으로 더 많이 등장한다.

한중연대는 이후 한인 독립운동 세력과 국민당 간 국제연대의 초석이 되었다.⁷⁾ 이 신아동제사에 황궈도 참여하여 한인 독립운동가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동맹회 → 신아동제사로 이어지는 황궈의 행보는 같은 길을 걸었던 국민당 계열 인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1913년에 떠난 일본 유학을 계기로 그의 사상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황궈는 도쿄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아나키즘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하일 바쿠닌(Mikhail Aleksandrovich Bakunin), 아나키스트이자 지리학자인 크로포트킨(Pjotor Alekseevich Kropotkin)의 저서를 탐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4년에는 중국공산당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리다자오(李大釗)와 함께 을묘학회(乙卯學會)를 조직하고 기관지 『민이』(民彝)를 창간하기도 하였다.⁸⁾

이렇게 사상과 인적 교류의 폭을 넓히던 황궈는 일본 유학 시절에도 한인 독립운동가들과의 연대를 계속하였다. 제3차 조선공산당 초대 책임비서를 역임하며 한국 공산주의운동의 핵심 인물로 성장하는 김철수(金鐵洙) 등과 손잡고 신아동맹당(新亞同盟黨)을 결성한 것이다. 1916년 도쿄에서 조직된 신아동맹당은 김철수를 대표로 하는 한인과 황궈를 비롯한 중국인이 주축이 된 단체로, 아시아 민족의 반제민족해방운동을 추진할 비밀결사체였다. 여기에는 한인, 중국인 뿐 아니라 타이완, 베트남, 인도 출신 유학생들도 참여하였다. 신아동맹당 결성식에서 황궈는 모임의 대표로서 “아세아에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새 아세아를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고, “검을 빼어 들고 엄숙히 맹서”했다.⁹⁾

7) 국사편찬위원회 편(1992), 『한민족독립운동사』 11, 국사편찬위원회, pp. 220-224.

8) 張衛波(2011), 「“大同黨”與中共早期組織關係考 — 以黃介民《三十七年游戲夢》爲例」, 『上海革命史資料與研究』 第十一期, 上海: 上海革命歷史博物館籌備處, p. 57, p. 59.

9) 이현주(2003), 『한국 사회주의세력의 형성: 1919~1923』, 일조각, pp. 151-152.

신아동맹당의 목표는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 내부의 평등과 국가 간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신아동맹당은 다양한 형태의 집회와 연설 등을 통해 민족해방을 대중적으로 선전하였다. 무엇보다 중국인 유학생과 연계하여 『한국통사』(韓國痛史)를 일본에 밀반입해 배포한 활동은 신아동맹당의 국제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¹⁰⁾ 신아동맹당 결성 후 황쥐는 조선을 방문하여 조소앙(趙素昂)과 안재홍(趙素昂)을 만났다. 모두 일본 유학파인 이들은 신아동맹당 조선지부를 만들고 대회를 열었다.¹¹⁾ 일본에서 시작된 국제연대가 조선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황쥐가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신아동맹당은 일제의 탄압 가능성을 고려하여 1917년 9월 30일 해산하였지만 여기에 소속되어 있던 재일유학생들은 각자 가담하고 있던 공개조직을 통해 계속해서 반일운동을 전개하였다.¹²⁾ 나아가 신아동맹당은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에서 처음 등장한 사회주의 정당인 사회혁명당의 모태가 되었고, 사회혁명당은 상하이에서 열린 고려공산당 창립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국내기관으로 전환되었다.¹³⁾ 신아동맹당은 중국에서도 후술할 대동당(大同黨)으로 이어져 항일단체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갔다.

황쥐가 일본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간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그의 회고록에 1916년 말 텐진(天津)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를 만났

10) 최선웅(2006), 「1910년대 재일유학생단체 신아동맹당의 반일운동과 근대적 구상」, 『역사와 현실』 60, 한국역사연구회, p. 386.

11) 김경남(2019), 「1910년대 재일 한·중 유학생의 비밀결사활동과 ‘민족혁명’ 기획 — 신아동맹당을 중심으로 —」, 『지역과 역사』 45, 부경역사연구소, p. 246. 이 논문은 신아동맹당을 이미 상하이에서 전개되고 있던 한중연대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신규식이 중심이 된 상하이 독립운동 거점 형성, 신아동맹사로 상징되는 중국인과의 연대 활동이 이미 신해혁명 시기부터 축적되고 있었고, 이 인맥으로 신아동맹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12) 최선웅(2006), pp. 388-389.

13) 사회혁명당 조직과정에 대해서는 이현주(2003), pp. 154-161 참고.

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¹⁴⁾ 1916년 하반기 무렵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황궈는 귀국 후 상하이에 터를 잡고, ‘대중국(對中國) 21개조요구’에 반대하는 항일운동단체 구국단(救國團)을 조직하였다. 구국단은 학생들과 연대하여 기관지 『구국일보』(救國日報)를 발행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삼아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¹⁵⁾

이 무렵 황궈는 여러 한인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우선 그는 1917년 여운형(呂運亨)의 오랜 동지인 조동호(趙東祐)를 『구국일보』 기자로 채용하였다. 조동호는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 창당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원,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등을 거쳐 건국동맹(建國同盟) 조직에 참가하는 등 해방이 될 때까지 언론 투쟁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조동호는 『구국일보』 기자로서 신규식, 안창호(安昌鎬)를 비롯한 한인 독립운동가들은 물론 중국인들과도 폭넓게 교류하면서 이를 항일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¹⁶⁾

이어 황궈는 1918년 김홍일(金弘壹)이 구이저우군관학교(貴州軍官學校)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황궈의 주선으로 구이저우군관학교에 입학한 김홍일은 그의 권유로 흥아사(興亞社)에 가입하였다. 황궈는 김홍일에게, 흥아사는 아시아 전역에 조직망이 있는 국제적인 비밀결사체이며 아시아 각 약소민족이 단합하여 자유와 독립을 찾는 것을 목표로 조직된 단체라고 소개하였다. 김홍일은 흥아사에 가입한 뒤 여러 차례 황궈를 만났으며, 구이저우군관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사관들을 흥아사에 가입시켰다.¹⁷⁾ 요컨대 황궈는 조동호에게 언론을 통한 항일활동 무대를 마련해주고, 김홍일에게는 중국 내 무관학교 입학을 주선하는 등 아시아 약소민족

14) 張衛波(2011), p. 60.

15) 이현주(2003), p. 153.

16) 정영희(2008), 「榴亭 趙東祐의 抗日獨立運動研究」, 『역사와 실학』 37, 역사실학회, p. 227.

17) 김홍일(1972), 『大陸의 憤怒 — 老兵의 回想記 —』, 文潮社, pp. 55-56.

연대라는 신아동맹당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황궈는 1920년 초 홍아사를 다시 한 번 개조하여 대동당을 결성하였다. ‘삼평주의’(三平主義), 즉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을宗旨(宗旨)로 한 대동당은 아나키즘적 색채가 농후한 단체였다.¹⁸⁾ 대동당은 한인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1918년 하바로브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조직한 이동휘(李東輝) 등은 황궈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동당을 통해 중국인 혁명가들과의 연대를 추구하였다. 황궈 역시 한인사회당의 후원을 받으며 중국의 초기 공산주의운동을 선도하였다.¹⁹⁾

황궈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원 김상옥(金相玉)을 추모하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1925년 조소앙(趙素昂)이 상하이에서 출판한 『김상옥전』의 서문을 바로 황궈가 작성한 것이다. 이 서문에 따르면 김상옥이 의거를 실행하기 전 조소앙이 그를 황궈에게 소개해주었으며, 이 자리에서 “인류 평등, 세계 대동”을 함께 실천하자고 약속하였다고 한다.²⁰⁾ 이보다 2년 앞선 1923년 2월 17일에도 황궈는 의열단원 오성륜(吳成崙), 김익상(金益相), 이종암(李鍾巖)의 황포탄의거(黃浦灘義舉, 1922. 3. 28.)로 희생된 영국인 여성 스나이더(Snyder)를 추모하기 위한 집회에 참석하는 등²¹⁾ 의열단 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다.

18) 張衛波(2011), p. 57.

19) 이현주(2003), p. 154, p. 165.

20) 김기승(2002), 「조소앙의 육성교 구상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국사관논총』 99, 국사편찬위원회, p. 182. 황궈는 조소앙과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는 조소앙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립을 위해 분투하는 조소앙에게 경의를 표하고, 한중 양 민족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근황을 전하며 만나기를 청하는 편지」(연도미상),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 국사편찬위원회(2007) p. 156). 이 편지에서는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소식을 주고받았던 사실도 확인된다.

21) 「한인의 정황에 관한 건」(1923. 2. 19.),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0, 국사편찬위원회(1991), pp. 18-19.

황궈는 임시정부 계열의 교민단이 주최한 3·1운동 기념식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냈는데, 현재 전해지는 자료만으로도 1925년, 1928년, 1930년의 세 차례 참석이 확인된다. 황궈는 상하이에서 열린 이들 3·1운동 기념식에 내빈으로 참석하여 한중연대를 강조하고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였다. 세 차례 모두 500여 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념식에서는 애국가 합창, 국기에 대한 경례,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신문』(獨立新聞) 3·1절 기념호 배포 등이 행해졌다.²²⁾

한편 1926년 장제스가 주도한 제1차 북벌에서 북벌군이 난창(南昌)을 점령하자, 황궈는 이곳으로 이동해 장시성(江西省) 수리국(水利局) 국장 겸 재무처장(財務處長)을 맡았다. 국민당 장시성 당부(黨部) 개조 시기에는 감찰위원과 중앙후보위원에 선출되기도 하였다. 중국의 초기 공산주의운동에 투신한 황궈가 어떠한 이유로 국민당에 본격적으로 가담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는 국민당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장제스 독재에 반대했기 때문에 요직을 맡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삼민주의역행사(三民主義力行社)의 수장 다이리(戴笠)가 보낸 회유성 자금을 거절하였다.²³⁾ 결국 그는 중일전쟁 종료 이후 국민정부에 실망하여 사직하고 고향인 칭장현에 거주하다가 1956년 사망하였다.

이처럼 황궈는 아시아 약소민족의 단결과 한중연대만이 공동의 적인 일제를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의 일관된 신념을 바탕으로, 이념과 계열을 떠나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지지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2) 「國外에서의 所謂 獨立宣言紀念日의 狀況에 관한 件 1」(1925. 3. 31.), 『不逞團關係雜件 — 朝鮮人の部 — 在支那各地』 4; 「상해 한국인 어제 독립선언 기념대회 개최」(1928. 3. 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9, 국사편찬위원회(2010), p. 225; 「어제 한국 독립을 기념」(1930. 3. 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9(2010), 국사편찬위원회, p. 341.

23) 「黃介民 百度百科」, 百度百科, 百度, 2019. 12. 1. <https://baike.baidu.com/item/%E9%BB%E4%B8%BB%E6%B0%91/10777521?fr=aladdin>.

하지만 국가보훈처의 공적조서 중 공적 개요에는 “1916년 일본 동경에서 김철수 등과 함께 신아동맹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1919년 이후 중국 상해에서 신아동제사 회원, 구국일보 주필, YMCA 편집인 등으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3·1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여 항일 연설을 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²⁴⁾ 이상과 같은 황제의 면모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은 사회주의·아나키즘 계열에 대한 지시다.

황제 외에도 사회주의·아나키즘 계열의 한인 독립운동가와 단체를 지원한 중국인 독립유공자들이 있지만, 해당 인물의 공적을 언급할 때 그 사실은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삼민주의역행사를 지휘한 다이리다. 남의사(藍衣社)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삼민주의역행사는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 제1~6기생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국민당의 첩보기구로, 김원봉과 그가 주도한 의열단·조선민족혁명당의 항일활동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며 공동 첩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²⁵⁾ 김원봉이 1932년 난징(南京)에 설립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역시 삼민주의역행사의 지원 아래 운영되었다.²⁶⁾ 그렇지만 다이리의 공적조서는 그가 남의사 책임자였다는 점을 적시하면서도, 공적 내용으로는 중일전쟁 이후의 임시정부·한국광복군 창설 지원 사실만 언급하고 있다.

24) 「독립유공자 공적조서_황가」, 공훈전자자료관, 국가보훈처, 2020. 3. 31. <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Popup.do?goTocode=0&mngNo=100031&wd=%ED%99%A9%EA%B0%81>.

25) 양지선(2016), 「한국독립운동세력과 CC파·역행사의 공동 첩보활동」, 『동양학』 6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6) 한상도(1989), 「김원봉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운영(1932~35)과 그 입교생」, 『한국학보』 15-4, 일지사. 삼민주의역행사의 김원봉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 지도부가 황포군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이 지원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김원봉은 황포군관학교 제4기생이고 다이리는 제6기생이다.

국민당이 윤봉길의거 이래 김구뿐 아니라 김원봉의 활동을 지원한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전자는 국민당 중앙당 조직부가 주관하였고 후자는 앞서 언급한 바처럼 남의사를 통해 이루어졌다.²⁷⁾ 김원봉에 대한 지원은 1938년 10월 10일 조선의용대 창설로 이어졌고,²⁸⁾ 조선의용대 주력 부대가 화베이(華北)의 중국공산당 관할 구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독립유공자 34명 가운데 공적조서에서 김원봉 계열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 인물은 천청(陳誠) 단 한 명뿐이다.²⁹⁾

이러한 상황은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중국공산당 계열 인물이 단 한 명도 서훈을 받지 못한 것과 함께, 중국에서 전개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고 한국전쟁 발발과 수행에도 책임이 없는 인사들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2005년 이후 사회주의 계열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서훈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중국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평면적 이해는 반드시 보완·극복해야 할 문제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중국인들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 전체상과 그 의의가 더욱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27) 한상도(2000), 『한국독립운동과 국제환경』, 한울, pp. 291-292.

28) 조선의용대 창설과정에 대해서는 염인호(2001),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 pp. 41-78 참조.

29) “1938년 중국 군사위원회 정치부장으로 조선의용대 창립과 활동을 지원함.” 「독립유공자 공적조서_진성」, 공훈전자자료관, 국가보훈처, 2020. 3. 31. <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tionReportDetailPopup.do?goTocode=0&mngNo=100028&kwd=%E9%99%B3%E8%AA%A0>.

3. 아내라는 이름에 가려진 여성 독립운동가: 두권혜이(杜君慧)의 사례

중국인 독립유공자 중 여성은 네 명이다. 이 가운데 2020년에 서훈을 받은 허상치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모두 독립운동가의 아내다. 장제스의 아내 쑹메이링, 김성숙의 아내 두권혜이, 조성환(曹成煥)의 아내 리수전이 그들이다. 이들의 활동은 그 자체가 조명받기보다는 남편의 조력자라는 틀 속에서 설명되는 경향이 강했다. 물론 이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남편이 걸었던 길과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들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에 가려진 활동이 적지 않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두권혜이다.

1904년 중국 광둥성(廣東省) 광저우시에서 출생한 두권혜이는 1924년 광둥대학(廣東大學)에 입학한 첫 번째 여학생이었다.³⁰⁾ 광둥대학은 1924년 2월 쑨원이 설립한 학교로, 1926년 쑨원의 호를 따 중산대학(中山大學)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중산대학은 의열단원과 조선민족혁명당원 등 수많은 한인 청년들이 수학한 곳으로, 한국 독립운동의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 학교이자 중국 남부지역에서 전개된 한국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다.³¹⁾

두권혜이가 중산대학에 재학하던 1927년 12월, 중국공산당 주도로 광저우봉기(廣州蜂起)가 일어났다. 장제스가 반공쿠데타를 일으켜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고 공산당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자 중국공산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켜 광저우를 점령한 것이다. 여기에는 김성숙, 오성륜, 김산(金山), 최용건(崔庸健) 등 200명이 넘는 한인 청년들이 참가하였다.³²⁾ 광저

30) 李盛平 主編(1989), 『中國近現代人名大辭典』,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p. 214.

31) 중산대학과 한국 독립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기영(2005), 「1930년대 中山大學과 한국독립운동」, 『진단학보』 99, 진단학회; 魏志江(2007), 「中山大學과 한국독립운동의 관계」, 『한국근현대사연구』 40, 한국근현대사학회 참조.

우봉기는 국민당의 유혈진압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갔고, 이 과정에서 봉기에 참여했던 많은 한인 청년들이 피살되었다. 광저우봉기가 3일 천하로 끝나자 두권훤이는 김성숙과 함께 중산대학 기숙사에 남아있던 한인 학생들의 광저우 탈출을 도왔다.³³⁾ 1928년 초 두권훤이 자신도 김성숙과 같이 광저우를 벗어나 홍콩을 경유하여 상하이로 탈출하였다.

상하이에 정착한 다음 해인 1929년 두권훤이는 김성숙과 결혼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해방될 때까지 거의 모든 활동을 함께하였다. 그런데 김성숙은 광저우봉기 실패 이후 1934년경까지 직접적인 항일전선에서 벗어나서, 공개적인 단체에서 활동하는 외에는 원고 집필과 번역활동, 교육활동에 전력하였다.³⁴⁾ 바로 이 사이 기간 동안 두권훤이는 본격적으로 여성문제 연구에 착수하는 동시에 중국 문화계·여성계가 벌이는 항일운동에 나서면서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우선 두권훤이는 김성숙과 함께 1930년 8월경 중국공산당 산하 혁명문학운동단체인 중국좌익작가연맹에 가입하였다. 혁명이 부부로서 두 사람이 함께 이 단체에 가입한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였다.³⁵⁾ 이와 함께 두권훤이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여성문제를 분석한 일련의 글들을 발표하였고, 1935년에는 월간 『부녀생활』(婦女生活)을 창간하였다. 『부녀문제강좌』(婦女問題講座)를 비롯한 두권훤이의 여성문제 관련 저서는 여성이 억압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여성

32) 광저우봉기를 다룬 가장 최신 연구는 여러 자료와 선행연구를 비교 검토하여 봉기에 참가한 한인의 수를 최소 220명 이상으로 추산하였다. 조은경(2019), 「중국 광주 지역 한인 독립운동 연구(1910~1948)」,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 128.

33) 이동연(2011), 「김성숙의 생애와 독립운동」, 『대각사상』 16, 대각사상연구원, pp. 246-247.

34) 김광재(2008), 「김성숙의 1930년대 중국관내지역의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44, 한국근현대사학회, pp. 41-43.

35) 김광재(2008), p. 42.

해방의 길을 제시하여 많은 여성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받고 있다.³⁶⁾

두견혜이는 문화계의 항일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35년 12월 12일 상하이의 중국좌익작가연맹 및 문화계 인사와 연명으로 「상하이문화계구국운동선언」(上海文化界救國運動宣言)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었다.³⁷⁾ 그는 같은 달 상하이여성구국회(上海婦女救國會)가 설립되자 이 단체의 조직부장을 맡아 상하이 여성들의 항일운동을 이끌었다. 김성숙도 여기에 가입하여 아내의 활동을 도왔다.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두견혜이는 훗날 전국각계구국연합회(全國各界救國聯合會) 이사에 선임되었다.³⁸⁾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두견혜이는 상하이를 떠나 우한(武漢)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곳에서 두견혜이는 남편 김성숙은 물론 김원봉, 유자명(柳子明), 최창익(崔昌益), 허정숙(許貞淑) 등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 소속 한인 독립운동가들과 같은 집에 살며 공동생활을 하였다.³⁹⁾ 이 시기 두견혜이는 국민당 군사위원회 정치부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에서, 전시고아원(戰時孤兒院)을 설립해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와 빈아(貧兒)들을 수용하여 교육하였다. 이 전시고아원은 김성숙과 유자명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기관지 『조선민족전선』(朝鮮民族戰線)을 편집·출판하는 아지트로서의 역할을 겸하였다.⁴⁰⁾ 일본군이 우한을 포위해오자 두견혜이는 고아원의 아동들을 데리고 충칭(重慶)으로 이동하였다.

36) 「杜君慧_百度百科」, 百度百科, 百度, 2019. 12. 1. <https://baike.baidu.com/item/%E6%9D%9C%E5%90%B%E6%85%A7/6321358>.

37) 姚辛(2006), 『左聯史』,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p. 457. 이 선언에는 김성숙도 서명하였다(p. 317).

38) 「杜君慧_百度百科」, 百度百科, 百度, 2019. 12. 1. <https://baike.baidu.com/item/%E6%9D%9C%E5%90%B%E6%85%A7/6321358>.

39) 조선민족전선연맹은 1937년 중국 난징에서 결성된 좌파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민족연합전선 단체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건립과정과 그 활동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강만길(1991),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和平社 참조.

4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1999), 『유자명 수기: 한 혁명자의 회억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 225.

충청에서 두견훤이는 임시정부에 합류한 김성숙을 따라 그 일원으로 한국 독립운동에 계속 참가하였다. 두견훤이는 중한문화협회(中韓文化協會) 발기인으로도 이름을 올렸고,⁴¹⁾ 1943년 2월 3일에는 임시정부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외무부 부원에 선임되었다. 이어 새로운 관제(官制)의 적용으로 4월 2일부터는 외무부 과원(科員)이 되어 같은 해 9월 28일까지 외무부 정보과(情報科)에서 활동하였다.⁴²⁾ 두견훤이는 남편을 도와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도, 1944년 월간 『직업부녀』(職業婦女)를 창간하고 1945년에는 중국부녀연의회(中國婦女聯誼會) 상무이사를 역임하는 등 충청에서도 중국 내 여성운동과 문화운동의 끈을 놓지 않았다.⁴³⁾

이 시기 두견훤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무슨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지 알려주는 자료가 남아 있다. 미주 동포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신문 『독립』에 실린 그의 글이 그것이다. 다소 길지만 인용해보면 아래와 같다(강조는 필자).

가장 사랑하는 조선의 부녀 동포 여러분! (중략) 먼저 여러분에게 알고 싶은 말씀은 **나는 조선의 딸입니다. 나는 조선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우수한 조선의 자녀들로 더불어 20년 동안이나 일관하게 환란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조선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또 인류의 가장 진보된 주의와 이상이 조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중략) 나는 늘 조선부녀들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 조선부녀 동포들이 전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또 자기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좀 더 잘 싸우고 좀 더 많은 공헌을

41) 「한·중협회 발기인 명단」, 『독립운동사자료집』 7,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1970),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p. 1112.

42)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77號」(1944. 4. 1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국사편찬위원회(2005), pp. 275-279;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79號」(1944. 10. 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국사편찬위원회(2005), pp. 294-298.

43) 「杜君慧_百度百科」, 百度百科, 百度, 2019. 12. 1. <https://baike.baidu.com/item/%E6%9D%9C%E5%90%9B%E6%85%A7/6321358>.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여러 가지 중대하고 긴박한 일 가운데서 **가장 더 긴박하게 준비하고 실행하여야 할 일이 혁명자를 후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다만 물질상 원조만 있으면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혁명자들이 그것이 없어서 원수 놈에게 잡히어 가게 되고 또 병마에 못 견디어 결국은 참혹하게도 세상을 떠나게 된 이가 얼마이며 (중략) 생활난과 병마에 걸리어 울고 있는 혁명자의 가족과 유족이 얼마입니까? (중략)

여러분 자매님! 이제 우리 부녀 동포들이 솔선하여 하루바삐 피난 중에 있는 혁명자와 혁명자 가족과 또 혁명자 유족을 구조하기 위하여 다 같이 용감하게 일어나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중략) **혁명자 후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우선 애국부인회의 주최로서 해외 각 부녀단체와 밀 유력한 개인을 총 망라하여 ‘부녀계 혁명자후원회’를 조직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혁명자후원회를 조직하여 가지고 먼저 해외 각지에 있는 조선동포들에게 향하여 **‘피난동포 구조의연금 모집 운동’**을 대규모로 진행합니다. (중략)

그리고 또 **우리 혁명자 후원에 관한 일은 결코 우리 민족 내부에서만 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 세계에 양심 있는 인류, 특히 중, 소, 미, 영 등 동맹 각국의 인민들에게, 더욱이 동정심이 많은 부녀들에게 향하여 “조선혁명자를 원조하려 달라”고 크게 소리쳐서 요구하여야 합니다. (중략) 동정과 원조를 받는 유력한 방법으로 먼저 **조선혁명자 후원**, 혹은 **전시 조선아동 보육**, 혹은 **난민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고, 동맹국 부녀들과 연합하여 자선 성질의 단체를 조직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중략) 우선 **우리 중경에 있는 조선부녀들은 중경에 있는 중국부녀들과 연합하여 ‘중한부녀친목회’** 혹은 **‘중한부녀호조회’ 같은 단체를 조직**하고 조선혁명자 후원에 관한 일을 하루바삐 시작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⁴⁴⁾

44) 「해외 조선부녀 동포들에게: 혁명자 후원사업을 하자」, 『독립』, 1945. 7. 11. 이 글은 당시 충칭 한인사회 최대의 여성단체였던 한국애국부인회(韓國愛國愛婦人會)의 기관지에 게재된 글을 옮겨 실은 것이다(한상도(2008), 「重慶 臨政 시기金星淑의 활동과 정치사상」, 『한국근현대사연구』 44, 한국근현대사학회, p. 76).

이 글에서 두권혜이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하는 일이 가장 절실하며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이 출선하여 다른 나라 여성들과 연합할 것을 역설하였다. 여기에는 1930년대부터 중국 여성계 항일운동에 투신하여 상하이여성구국회 등에서 활동하고 전시고아원을 운영한 두권혜이의 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즉, 이 글은 여성운동가이자 한국 독립운동의 든든한 지지자로서 두권혜이의 면모를 매우 잘 드러내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두권혜이는 김성숙의 부인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다. 특히 김성숙이 중국 측 인사들과 교류하고 한중연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국인인 두권혜이의 존재는 굉장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두권혜이는 중국공산당 지도자 중 한 명인 저우언라이의 아내 덩잉차오(鄧穎超)와 매우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김성숙도 저우언라이를 비롯한 중국공산당 간부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⁴⁵⁾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가 같이 걸었던 항일의 길에서 두권혜이는 남편의 보조자로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때로는 활동을 주도하며 남편을 이끌었고,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확고한 주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20년 가까이 “조선의 딸”로서 한국 독립운동에 헌신해온 두권혜이에게 해방은 분명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테지만 김성숙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1945년 11월 5일 김성숙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충칭을 떠났지만 두권혜이는 세 아들과 함께 중국에 남았다.⁴⁶⁾

45) 이정식 면담, 김학준 편집·해설(1988),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pp. 106-107.

46) 「자명동지 — 두권혜이의 편지1」(1980. 8. 6.), 『유자명자료집』 1, 충주시·충주MBC (2006), pp. 161-162. 두권혜이와 자식들이 왜 김성숙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는지는 추정만 가능하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현재로서는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두권혜이는 중국에 모든 생활기반이 있는 중국인이었으므로 그곳을 떠나 타국으로 가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해방 직후의 혼란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급방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후 두권훤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래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다가 1981년 2월 7일 베이징(北京)에서 별세하였다.⁴⁷⁾ 김성숙도 1969년까지 생존하였으나 두 사람은 1945년 헤어진 이후 만나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잊혀가던 두권훤이의 독립운동이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2016년에 이르러서였다. 1982년에 김성숙이 서훈을 받은 지 34년이나 지난 뒤의 일이었다.⁴⁸⁾ 두권훤이에 대한 서훈이 왜 2016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는지 필자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992년 중국과 수교하기 전까지 그가 서훈 심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두권훤이는 1956년 중국공산당 제8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하는 등 ‘적성’(敵性) 국가에서 정치활동을 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두권훤이의 삶과 그에 대한 서훈 시점은 중국인 독립유공자 포상이 실질적인 독립운동 이력보다 정치적 이유에 크게 좌우되었음을 또 한 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1945년 당시 12살이었던 둘째 아들이 12월 말에서 이듬해 1월 초 사이에 복막염에 걸려 입원 치료를 했다는 편지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몸이 성치 않은 아이와 함께 쉽게 중국을 떠나기도 어려웠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47) 「杜君慧_百度百科」, 百度百科, 百度, 2019. 12. 1. <https://baike.baidu.com/item/%E6%9D%9C%E5%90%9B%E6%85%A7/6321358>.

48) 「독립유공자 공적조서_김성숙」, 공훈전자자료관, 국가보훈처, 2020. 5. 8. <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Popup.do?goTocode=0&mngNo=778&kwid=%EA%B9%80%EC%84%B1%EC%88%99>. 김성숙의 서훈도 그가 사망한 지 13년 후에야 이루어진 것이었다. 임시정부 가담 이전 의열단,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의용대 등에서 활동했던 전력과 해방 이후 혁신계 정치인으로 이승만·박정희 정권과 대립했던 행보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4. 해방 후까지 이어진 한중연대: 쓰투더(司徒德)의 사례

중한문화협회는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의 중국인 독립유공자가 관계한 단체다. 쑨커, 주자화, 천귀푸, 쓰투더(司徒德), 왕주이(汪竹一), 장지(張繼) 등 총 11명이 중한문화협회의 발기인, 이사(장), 명예이사로 이름을 올렸다.⁴⁹⁾ 중한문화협회와 여기에 가담한 인사들 중 일부는 해방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교류를 이어갔다. 때문에 중한문화협회는 국민당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뿐 아니라 해방 후 한중관계를⁵⁰⁾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연구대상이지만, 학계에서는 오랜 기간 그 존재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⁵¹⁾

중한문화협회는 한중문화협회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협회의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한중문화협회는 1965년 12월 1일 항일운동가, 임시정부 요인 등이 서울에서 모여 재창립되었다. 재창립 이후 1986년까지 협회의 회장은 최용덕(崔用德), 조시원(趙時元), 최덕신(崔德新), 박영준(朴英俊), 조일문(趙一文) 등이 맡았는데,⁵²⁾ 이들은 모두 한국광복군

49) 중한문화협회의 발기인 명단은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1970), p. 1112에, 창립 당시 명예이사, 이사, 감사 등의 명단은 「中韓文化協會昨成立」, 『新華日報』, 1942. 10. 12(한시준(2010), 「중한문화협회의 성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 383에서 재인용)에 기재되어 있다.

50) 여기에서 한중관계는 한국과 타이완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맺고 타이완과 단교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중국’은 곧 타이완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물론 타이완을 호칭하는 ‘자유중국’이라는 보다 빈도수 높은 용례가 있지만, 해방 후 타이완을 다루는 신문기사나 지식인들의 타이완 방문기, 시와 논설 등을 살펴보면 타이완을 그냥 ‘중국’이라 호명하는 사례 역시 매우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윤영현(2019), 「냉전기 한국사회의 자유중국(대만) 인식」, 『한국학연구』 6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 121.

51) 중한문화협회를 단독으로 다룬 국내 연구는 한시준(2010)이 유일하고, 중국인 학자 스위안화(石原華)가 2007년 발간한 『中韓文化協會研究』(北京: 世界智識出版社)를 번역하여 출판한 『韓中文化協會研究』(한중문화협회(2013), 늘품플러스)가 있다.

52) 「협회소개」, 한중문화협회 홈페이지, 한중문화협회, 2020. 4. 6. <http://www.k-cca.or.kr>.

출신이다. 1986~1998년 동안 회장을 역임한 이종찬(李鍾贊)과 2016년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李鍾杰)도 이회영(李會榮)의 손자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한중문화협회는 한국 독립을 목표로 한 한중연대라는 창립 당시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중국에 이와 쌍을 이루는 자매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한문화협회는 1942년 10월 11일 충칭에서 조직되었다. 중한문화협회의 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임시정부 외교부장이었던 조소앙과 중국국민정부 입법원장(立法院長)을 맡고 있던 쑨커였다.⁵³⁾ 여기에는 중국국민정부의 당·정·군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충칭에 결집해 있던 한인 독립운동 세력이 대거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한문화협회의 명예 이사에는 저우언라이와 같은 중국공산당 핵심 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⁵⁴⁾ 성립 당시 참여한 인원은 약 400명이었고, 2년 후에는 회원 수가 668명으로 늘어났다.⁵⁵⁾

중한문화협회는 두 나라의 유대를 증진시키는 한편, 한국 독립의 지위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서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아내며 중국의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는 것을 3대 업무 목표로 삼았다.⁵⁶⁾ 이를 위해 중한문화협회는 3·1절 기념 강연회, 임시정부 수립 25주년 기념 강연회, 임시정부 승인 좌담회 등의 각종 행사를 주관하며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런 행사들에서는 임시정부 승인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중국국민정부에 촉구하기로 결의하였다.⁵⁷⁾

중한문화협회는 일본군을 탈출하여 충칭에 합류한 한인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환영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45년 2월 5일 중한문화협회 강

53) 한시준(2010), pp. 379-380.

54) 한중문화협회(2013), p. 72.

55) 한시준(2010), p. 384-385.

56) 한중문화협회(2013), p. 74.

57) 한시준(2010), pp. 390-394.

당에서 열린 환영회에는 한중 양국 인사 및 내외신 기자 1백여 명이 참여하였다. 주석을 맡은 샤오리즈(邵力子)는 “한국청년들이 적진을 탈출하여 귀순한 것은 두 민족의 합작 결심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한중연대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 쓰투더는 중국어와 영어로 일본군을 탈출한 한인 청년들이 충칭까지 도착하게 된 경과를 보고하였다.⁵⁸⁾

중한문화협회는 형식상 민간단체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국민당 차원의 외교를 추진한 기구였다. 중한문화협회의 활동은 국민당 중앙조직부의 통제를 받았고, 당시 국민당 고위층 지도자들은 거의 모두 중한문화협회와 각종 형태로 연계되어 있었다.⁵⁹⁾ 이 같은 성격은 중한문화협회 설립부터 국민당 외교부가 관여하였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⁰⁾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이 중한문화협회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긴 했으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고, 성립 2년차 회원 수 668명 중 한국 측 인사는 100명 정도로 회원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도 중국인이었다. 즉, 중한문화협회는 국민당이 주도한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외교단체라고 할 수 있다.

쓰투더는 중한문화협회 결성 준비과정부터 깊이 개입한 인물이다. 협회 설립은 1942년 4월 15일 주비회(籌備會)가 조직되어 추진하였는데, 쓰투더는 주비회 주석을 맡아 업무를 총괄하였다. 수개월 간의 준비 끝에, 1942년 10월 8일 주비회는 충칭에서 활동하는 각 문화단체 책임자를 초청하여 중한문화협회 결성 관련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때 쓰투더는 임시정부 측의 신익희(申翼熙)와 함께 협회 설립 준비경과를 발표하였다.⁶¹⁾

58) 「中韓文化協會의 일본군진영 탈출 병사를 위한 환영회 개최」(1945. 2. 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국사편찬위원회(2008), p. 237; 「中韓文化協會의 일본군진영 탈출 병사를 위한 다과회 개최」(1945. 2. 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국사편찬위원회(2008), p. 238.

59) 한중문화협회(2013), pp. 5-6.

60) 한시준(2010), p. 380.

3일 후 열린 중한문화협회 성립식에서도 쓰투더는 협회 설립경과를 상세히 보고하였다.⁶²⁾

쓰투더는 10월 17일 개최된 제1차 이사 및 감사회의에서 중한문화협회 비서장에 임명되어 중한문화협회 활동의 실무를 관장하게 되었다.⁶³⁾ 쓰투더가 중한문화협회에서 맡은 일은 실로 다양하였다. 예컨대 쑨커와 조소앙의 면담장소 및 시간을 정하는 문제, 중한문화협회에서 행한 강연의 연사를 섭외하거나 강연원고의 교정을 요청하는 내용, 강연을 위해 중국에 오는 미국 학자와 접촉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등이 모두 쓰투더의 몫이었다.⁶⁴⁾ 앞서 언급한 각종 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기념식 대부분을 주관한 것도 쓰투더였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쓰투더는 한인 독립운동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중에서도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던 조소앙과는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⁶⁵⁾

중한문화협회의 살림을 담당한 쓰투더가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펼친 주제는 임시정부 승인문제였다. 특히 1943년 12월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자, 쓰투더는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여 동맹국들이 임시정부를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담화에서

61) 「中韓文協即將成立」, 『大公報』, 1942. 4. 16; 「中韓文協定十一日成立」, 『大公報』, 1942. 10. 9.

62) 「中韓文協作成立」, 『大公報』, 1942. 10. 12.

63) 한시준(2010), pp. 386-387.

64) 「입법원장 孫科와의 면담장소와 시간을 전하는 편지」(1942. 3. 2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 국사편찬위원회(2007), pp. 123-124; 「중한문화협회에서 행한 강연원고의 교정을 청하는 편지」(1943. 10. 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 국사편찬위원회(2007), pp. 132-133; 「중한문화협회에서 강연을 청하는 편지」(1943. 12. 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 국사편찬위원회(2007), pp. 133-134; 「강연차 중국에 오는 미국 학자와 접촉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편지」(연도미상),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 국사편찬위원회(2007), p. 147.

65) 쓰투더의 부친상에 조소앙이 직접 조문한 것은 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친상에 조문의 뜻을 전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편지」(연도미상),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 국사편찬위원회(2007), p. 155.

쓰투더는 “중·미·영 3국 영수가 전후 한국의 독립을 보증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중략) 장 위원장(장제스, 필자)께서 누차 공개적으로 선언한 한국 독립 보증 약속, 중한문화협회 손 이사장(쑤커, 필자)의 평소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동맹국들은 속히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하여 영도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임시정부가 동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은 평소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바”라며 임시정부 승인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⁶⁶⁾

쓰투더는 해방 이후에도 임시정부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쓰투더가 임시정부 주화대표단(駐華代表團)이 추진하는 중국 내 한국 관련 업무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이다.⁶⁷⁾ 해방 후 중국에 거주하던 한인의 보호와 귀국 알선을 주요 업무로 했던 주화대표단은 임시정부가 귀국하면서 중국 땅에 남겨놓은 외교성과였다. 주화대표단의 설치는 한반도에 공식 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정부를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한 국민당의 대한반도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⁶⁸⁾ 쓰투더의 발언은, 중한문화협회를 통해 다져진 양 ‘정부’의 협력적인 외교관계가 해방 이후에도 협회의 핵심 인물을 매개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한문화협회는 해방 후 중국을 방문한 이승만을 접대하는 역할도 담

66) 「카이로회의선언에 대한 한인들의 반응과司徒德의 한국임시정부 승인 요청」(1943. 12. 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국사편찬위원회(2008), p. 186.

67) 「사진과 선물에 감사하며 작별을 고하는 편지」(1945. 11. 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국사편찬위원회(2008), p. 298. 이 편지는 쓰투더가 김구에게 보낸 것이다. 이 편지에서 쓰투더는 “앞으로도 중한 두 나라의 우의 증진을 위해 미약한 힘이나마 보탬 것을 약속”한다며, “중한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축원”한다고 언급하였다.

68) 김정인(1997), 「임정 주화대표단(駐華代表團)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24, 한국역사연구회, p. 122.

당하였다. 이승만은 1947년 4월 장제스와 정부 수립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상하이로 방문하였다.⁶⁹⁾ 4월 10일 중한문화협회는 상하이에 도착한 이승만을 초대하여 환영식을 가졌다.⁷⁰⁾ 다음날 이승만이 난징으로 이동하자,⁷¹⁾ 난징역에서는 중한외교협회가 동원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이승만을 환영하였다. 이승만의 난징 방문에 동행한 이는 다름 아닌 쓰투더였다.⁷²⁾

이듬해 쓰투더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소속으로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갔다. 잘 알려진 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가능하게 했던 1948년 5·10총선거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을 통해 실시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중국부대표 겸 제2분과위원회 위원으로 1947년 2월 13일 한국에 도착한 쓰투더는 이틀 후 김구를 만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였다.⁷³⁾ 쓰투더는 5·10총선거 이후에도 한국에 머물며 중한문화협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한국 측 인사들과 두루 교류하였고,⁷⁴⁾ 1949년 6월 26일 김구가 세상을 떠나자 경교장을 찾아가 조문하며 슬픔을 함께 하였다.⁷⁵⁾

해방 후 중한문화협회와 쓰투더의 활동은 식민지시기에 시작된 국민당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이 해방 이후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고 또 달라지는

69) 이승만과 장제스의 회담은 4월 13일 상하이에서 이루어졌다. 이 회담에서 장제스는 한국의 독립정부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李博士 蔣主席 會談 朝鮮獨立運動을 支持」, 『동아일보』, 1947. 4. 15.

70) 중한문화협회는 이승만이 상하이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국민당 상하이시당, 국민당 지방본부 및 기타 10여 개 단체들과 함께 “조선의 비공식 특사”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上海서 李博士 歡迎準備」, 『영남일보』, 1947. 4. 6.

71) 「李博士 南京着」, 『현대일보』, 1947. 4. 13.

72) 한중문화협회(2013), p. 162.

73) 「司徒德 중국 대표, 金九씨와 要談」, 『자유신문』, 1948. 2. 17.

74) 「司·謝 양씨 申사장 치하」, 『자유신문』, 1948. 8. 7; 「德·朴烈씨 등 京橋莊 弔慰 방문」, 『자유신문』, 1948. 8. 13.

75) 「香火그윽한 殯所, 嗚咽속에 잠기인 京橋莊」, 『조선중앙일보』, 1949. 6. 29.

지를 잘 보여준다. 사실 국민당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만이 아니라 식민지 시기에 전개된 독립운동 자체를 현대사의 맥락과 관련지어 분석하려는 학계의 시도는 그리 많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독립유공자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을 조금 더 긴 시간대와 넓은 시야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중국에서 전개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양과 질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왔으나, 중국인 독립유공자의 개별 활동과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어떤 인물이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을지라도 국민당 계열 이외의 인사는 주목받지 못하였고, 국민당에 속한 인물이라도 그들의 임시정부·한국광복군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그 외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못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한 중국인 독립유공자 세 명의 활동을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황궈는 국민당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해당 인물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황궈는 국민당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사회주의자·아나키즘 계열 한인 독립운동가들과도 교류하면서 아시아 약소민족의 단결과 한중연대라는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황궈 외에도 사회주의·아나키즘 성격의 한인 독립운동가와 단체를 지원한 중국인들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 서훈을 받지 못했거나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 전체상을 새롭게 조망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평면적 이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다.

두권혜이를 통해서도 김성숙의 아내나 보조자가 아니라 또 한 명의 ‘온전한’ 독립운동가로서의 위상을 찾아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성숙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두권혜이는 남편의 독립운동을 보조하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이론과 경험을 두루 갖춘 여성운동가이자 항일운동가로서,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주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지지한 중국인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쓰투더와 중한문화협회는 국민당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을 현대 한중관계라는 더 큰 시야 속에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중한문화협회의 실무자로서 한국과 인연을 맺은 쓰투더는 해방 후에도 중한문화협회를 매개로 한 한중교류에서 중책을 맡았고, 한국 정부 수립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쓰투더의 사례 외에도 식민지시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중국인들 중 상당수는 해방 후 한국과 여러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으리라 추측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중국인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 의미를 더욱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을 통해 국민당 주류 인사 외에 한국 독립운동을 여러 방식으로 지원한 중국인들의 활동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고, 이후 관련 연구를 위한 과제를 나름대로 제시해보았다. 이를 시작으로 외국인 독립운동가 삶 전반을 추적하는 사례 연구가 축적된다면, 한국 독립운동의 전체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세계사적 차원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가보훈처의 공적조서 내용이나 서훈 시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여, 외국인 독립유공자의 행적과 포상이라는 정부 차원의 행정적 절차 사이에 일정 정도의 괴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 외국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평가와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사례로 든 세 명의 한국·한국인에 대한 인식, 한국 독립운동 지원 배경, 활동의 한계나 문제점 등을 거시적으로 분

석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공적조서와 서훈의 ‘정치성’을 지적했으면서도 이들이 공적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 서훈되지 않았는지, 세 명 외에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사실이 분명하지만 서훈을 받지 못한 인물은 없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담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외국인 독립유공자와 관련한 사료의 적극적인 발굴과 이들에 대한 ‘서훈의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자 료】

『독립』, 『동아일보』, 『영남일보』, 『자유신문』, 『조선중앙일보』, 『현대일보』.

『大公報』, 『新華日報』.

「國外에서의 所謂 獨立宣言紀念日の 狀況에 관한 件 1」(1925. 3. 31.), 『不逞團關係雜件 — 朝鮮人の 部 — 在支那各地』 4.

국사편찬위원회(20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9,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200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200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20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1991),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0,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1970), 『독립운동사자료집』 7,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충주시·충주MBC(2006), 『유자명자료집』 1, 유자명자료집간행위원회.

【논 저】

강만길(1991),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和平社.

국사편찬위원회 편(1992), 『한민족독립운동사』 11, 국사편찬위원회.

김경남(2019), 「1910년대 재일 한·중 유학생의 비밀결사활동과 ‘민족혁명’ 기획 — 신아동맹당을 중심으로 —」, 『지역과 역사』 45, 부경역사연구소.

김광재(2008), 「김성숙의 1930년대 중국관내지역의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44, 한국근현대사학회.

김기승(2002), 「조소앙의 육성교 구상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국사관논총』 99, 국사편찬위원회.

김정인(1997), 「임정 주화대표단(駐華代表團)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24, 한국역사연구회.

- 김홍일(1972), 『大陸의 憤怒 — 老兵의 回想記 —』, 文潮社.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1999), 『유자명 수기: 한 혁명자의 회억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양지선(2016), 「한국독립운동세력과 CC파 · 역행사의 공동 첩보활동」, 『동양학』 6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염인호(2001),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
- 윤영현(2019), 「냉전기 한국사회의 자유중국(대만) 인식」, 『한국학연구』 6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魏志江(2007), 「中山大學과 한국독립운동의 관계」, 『한국근현대사연구』 40, 한국근현대사학회.
- 이동언(2011), 「김성숙의 생애와 독립운동」, 『대각사상』 16, 대각사상연구원.
- 이정식 면담, 김학준 편집 · 해설(1988), 『혁명가들의 항일희상』, 민음사.
- 이현주(2003), 『한국 사회주의세력의 형성: 1919~1923』, 일조각.
- 정영희(2008), 「榴亭 趙東祐의 抗日獨立運動研究」, 『역사와 실학』 37, 역사실학회.
- 조은경(2019), 「중국 광주지역 한인 독립운동 연구(1910~1948)」,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철행(201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개발TF팀의 사업과 과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최기영(2005), 「1930년대 中山大學과 한국독립운동」, 『진단학보』 99, 진단학회.
- 최선웅(2006), 「1910년대 재일유학생단체 신아동맹당의 반일운동과 근대적 구상」, 『역사와 현실』 60, 한국역사연구회.
-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편(2019),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 특별판』 3, 독립기념관
- 한국역사연구회 엮음(2019), 『한국인의 빛, 외국인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
- 한상도(2008), 「重慶 臨政 시기 金星淑의 활동과 정치사상」, 『한국근현대사연구』 44, 한국근현대사학회.
- _____(2004), 『중국혁명 속의 한국독립운동』, 집문당.
- _____(2000), 『한국독립운동과 국제환경』, 한울.
- _____(1994), 『韓國獨立運動과 中國軍官學校』, 문학과 지성사.
- _____(1989), 「김원봉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운영(1932~35)과 그 입교생」, 『한국학보』 15-4, 일지사.

한시준(2010), 「중한문화협회의 성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중문화협회(2013), 『韓中文化協會研究』, 늘품플러스.

姚辛(2006) 『左聯史』,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李盛平 主編(1989) 『中國近現代人名大辭典』,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張衛波(2011), 「“大同黨”與中共早期組織關係考 — 以黃介民《三十七年游戲夢》爲例」, 『上海革命史資料與研究』 第十一期, 上海: 上海革命歷史博物館籌備處.

국가보훈처 공훈전자 사료관(<http://e-gonghun.mpva.go.kr/user/index.do>).

한중문화협회 웹사이트(<http://k-cca.or.kr>).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

원고 접수일: 2020년 4월 16일

심사 완료일: 2020년 5월 5일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7일

ABSTRACT

Case Analysis of Chinese Support for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Focusing on Huang Jue (黃覺), Du Junhui (杜君慧), Si Tude (司徒德)

Moon, Mira*

Most of the Chinese independence patriots, who were honored for their support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were known as Guomintang affiliates. In the process of numerous Koreans moving to China and supporting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e Guomintang had long supported the movement. However, the Chinese who helpe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came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contexts; personnel and activities outside the Guomintang were relatively unknown. Also,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regard the support of the Guomintang as support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selected three Chinese independence patriots who have not been acknowledged to date and examined their support activities for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uang Jue (黃覺), who was a member of the Guomintang but worked with socialism-and anarchism-oriented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dem-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University of Seoul

onstrated the need to actively evaluate various practices of a person beyond the framework of the Guomindang. The case of Du Junhui (杜君慧) called for the necessity to appreciate an independent activist as a ‘full’ figure, rather than as someone's wife or assistant. Finally, Si Tude (司徒德) and the China-Korea Culture Association suggested that the support of the Guomindang’s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could be analyzed in a larger framework of modern Korea-China relations. These examples can provide a new view of the Chinese people’s overall support for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further contribute to discovering the existence of unacknowledged Chinese who cooperated with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